韓國生藥報

本紙는 新聞倫理綱領및 實踐要綱을 遵守합니다.

發行人兼編輯人 李 鍾 容
印 刷 人 張 玉 煥
編輯局長 田 根 澤

發 行 所
社團法人 韓國生藥協會
〈우편번호 130-062〉
서울시 동대문구 제기동 1140-55(大山빌딩 3층)
☎967-8133. 969-6875
FAX : 965-0643

(每月 初日發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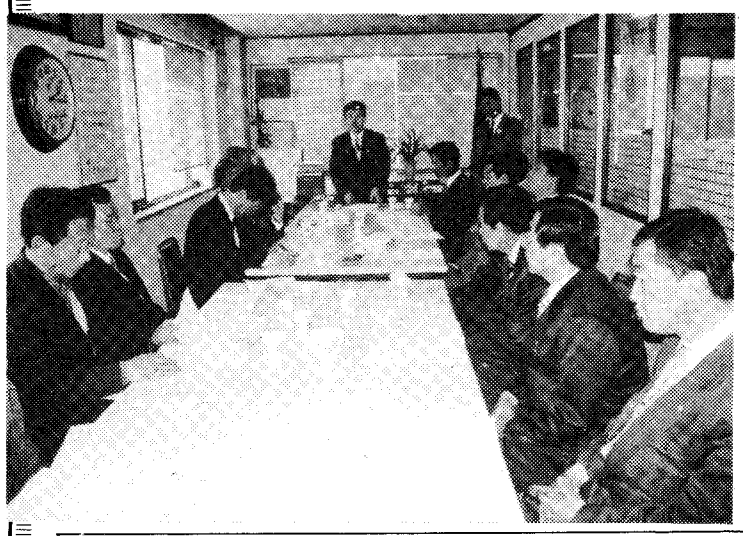
지면안내

⊙97년 제1차 이사회 이모저모 …… 3면
⊙생약협회 97 사업계획안 : 4면
⊙재조명/이종용회장의 지난3년 …… 4·5면

지황 늦장수매 농민 울상

국내산 지황 수확기 완료 4달째 창고 신세

전량수매조건 무색, 수입 3백t 이미 배정



◇97 제1차 이사회가 지난달 26일 협회회의실에서 열렸다.

국내산 지황수매가 지연됨에 따라 생산농가로부터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한약재 수급조절위원회는 96년 11월7일 열린 제17차 회의에서 중국산 지황 1천톤 수입을 결정하면서 그 단서조항으로 국내산 지황 전량 수매를 약속했다.

그리고 예정대로 들여온 수입지황 1천톤은 3월말까지 5백톤 6월말까지 5백톤으로 나누어 배정될 예정이며 2월말 현재 3백톤 정도가 이미 배정돼 있는 상태다.

그러나 수확완료 3달이 지나도록 국내산 지황은 수매되지 않은채 아직 창고에 쌓여있다.

전국적으로 농가가 보유하고 있는 개량종 국산 지황의 총량은 어림잡아 약14톤 정도. 1천톤이라는 수입량에 비하면 「코끼리 비스켓」 수준에 불과한 양이다.

그럼에도 지황의 대량 소비단체인 숙지황제조협회는 가격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매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어 생산농민들의 애를 태우고 있다.

경북 김천에서 지황생산을 지도한 허영씨(생약협회 김천공판장장)는 「지난해는 예년 보다 평당수확량이 3분의 1수준으로 감소한데다 인건비등의 물가상승으로 95년 당시보다 kg당 생산비가 훨씬 많이 소요됨에 따라 손해가 막심한데 수확이 끝난지 한참이 지났는데도 네 달째 창고에 쌓여있으니 한달 창고비 만도 농민들에게는 부담스러운 실정」이라고 하소연 했다.

그러나 당초 수급조절위원회에서의 1천톤 수입 결정시 국내산 수매를 조건으로 했다고는 하지만 국내산 수매여부가 수입산 배정에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채 이미 통관배정되고 있는 1천톤이라는 상반기 소비물량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 소비단체측에서는 지금 당장 아쉬울게 없는 셈이다.

파종시기를 앞두고 지황수매가 계속 지연될 경우 올 재배면적에도 상당한 타격을 미칠 것이란 분석에 따라 국내 생산기반 마련 차원에서라도 국내산 지황의 무조건적인 수매가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실제로 지난 95년 생산량에 대한 수매가 96년 파종시기를 넘긴 5월에야 마무리됨에 따라 지난해 지황재배면적은 95년 11만7천여평에 비해 96년 8만4천여평으로 대폭 감소했다.

〈문정희 기자〉

한약재 관세면제 미국FDA

구기자 오미자 결명자 등 우리나라 한약재들이 미국에서 의약품으로 분류돼 관세가 면제된다.

복지부는 최근 미국대사관이 자국 식품의약품국(FDA)로 부터 이첩된 이같은 사실을 통보 받았다.

따라서 이들 한약재들은 미 FDA가 규정한 표시사항을 잘 이해해야 하며 한약재의 수출이 활기를 띨 것으로 전망된다.

97 제1차 이사회 개최

5억5천만 예산 원안 통과

사단법인 한국생약협회는 지난달 26일 오후2시 협회 회의실에서 97년 제1차 이사회를 개최했다.

3월 정기총회를 앞두고 열린 이날 이사회에서는 △96년 사업실적 및 경과보고 △97년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안 심의 △정관개정의건등이 논의됐다.

한편 제28차 정기총회는 오는 27일 오전 11시 경동프라자에서 개최키로 확정하는 한편, 97년 예산안으로 협회 사무국 3억1천2백만원 국산한약재 상설매장 1억9천3백만원 총 5억5백만원이 원안대로 통과됐다.

이사회에서는 올 한해 사업계획으로 △우수품종 생산 및 지역별 특화사업 △판매장려 및 전시회 개최 △안정적 수급조절 및 홍보 △국내생약재 전시포 설치 △1지역1품목 운동 전개로 경쟁력 강화 △상설전시관 설립추진 등을 승인했다.

정관개정과 관련해서는 제8조 〈탈퇴한 회원 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명된 자는 기납회비의 반환 및 본회 재산에 대한 분배는 청구할 수 없다〉는 규정을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기금등으로 적립되는 회비와 출자금 재산의 지분등은 정산 반환할 수 있다〉고 개정했다.

〈관련기사3면〉

제28차 정기총회 소집

협회 정관 제10·11조에 의거 97년도 제28차 정기총회를 다음과 같이 소집합니다.

▨일시 : 1997년 3월 27일(목) 오전 11시
▨장소 : 경동 웨딩프라자(2층)(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소재)
▨참가대상 : 협회 중앙이사 및 감사, 광역시·도지부장·공판장장, 시·군·구 사무소장 공판장장
▨의안 :
ㅇ96년도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보고
ㅇ97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편성(안) 심의 승인
ㅇ정관 일부 개정(안)
ㅇ제11대 회장 선출

1997년 3월 1일
사단법인 한국생약협회

(공고)

제11대 회장 입후보 등록 공고

제10대 회장 임기가 97년 3월 31일 완료됨에 따라 제11대 회장 입후보등록을 정관 제14조, 15조 및 86차 이사회('97.2.26)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아 래—

1. 입후보공고일 : 97.3.1(지부공문, 본부게시판, 한국생약보)
2. 입후보등록기간 : 97. 3. 10. 10시~97. 3. 15. 12시까지
3. 선거일자 : 97. 3. 27.(목) (투표장소 : 총회 회의장)
4. 후보등록 제출서류
   가) 후보등록신청서 1통(선관위 소정양식)
   나) 협회이사 3명 이상 추천서(선관위소정양식)
   다) 투, 개표 참관인 추천자 2명(선관위 소정 양식)
   라) 후보이력서1통(사진부착) 마) 주민등록등본 1통
   바) 명함판사진 1매 사) 수임금액 : 선관위 문의
5. 후보선거운동기간 : 등록일로부터 97년 3월 25일 24시까지
6. 자격 : 생약협회회원으로서 3년 이상 경력자

1997년 3월 1일

한국생약협회 선거관리위원회